



# 양양소식

**군정방침**

I. 신뢰받는 자치행정  
 I. 균형있는 지역발전  
 I. 매력있는 관광개발  
 I. 실속있는 복지실현  
 I. 특색있는 문화창달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 국제화 관광홍보 나선다

### 탁장사 겨울나기, 송천리 떡마을 체험행사 낙산 하조대 등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관광상품화에 성공한 탁장사 겨울나기와 송천리 떡마을 체험행사 등 양양의 전통문화 체험관광이 ‘테마관광’의 모델로 선정돼 전국에서 모인 시·도 관계자들에게 시범을 보이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우리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24일까지 이틀간 전국 9개 시·도 관계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연찬회 및 탁장사 겨울나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 시범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연찬회와 함께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오순환 소장이 진행하는 전통문화 학습·체험 설명회를 듣고 탁장사 겨울나기의 고장인 현북면 어성전 2리를 방문,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또한 행사 둘째날은 하조대 일출과 송천리 떡마을 체험을 비롯해 양양 5일장을 둘러본 뒤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주제로 종합토론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군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도시민 1백27명을 대상으로 ‘탁장사 겨울나기’ 체험관광을 펼쳐 농가외 소득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실시된 전국 시·도 관계자들의 양양방문과 체험행사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테마관광육성에 따라 전국단위 협의체가 구성될 계획이며 농촌지역 경기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농업기술센터 이상범소장은 “양양의 문화전통을 관광상품화한 ‘테마관광’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군은 이같은 관광활성화 방침에 따라 오는 3월28일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낙산과 하조대 도립공원내에 관광지 통역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관광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21일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에 대한 회화 가능자를 배치하고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 운영하는 관광지 통역안내원은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대표적 관광명소인 낙산과 하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된 양양의 연계관광을 소개하며 이미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양양국제공항 3월 28일 개항

### 지난달 17일 잠정 확정...막바지 개항준비 박차

설악권의 날개로 불릴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일이 오는 3월28일로 잠정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우리군과 한국공항공단 속초지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일을 이같이 잠정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단 속초지사는 이에 따라 공항내부시설과 시스템, 검색기기 등의 점검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순조로운 개항에 대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완벽한 개항준비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2월중 초등생 2백여명을 가상승객으로 하는 출·입국 절차와 시뮬레이션 운항을 실시하는 한편 개항일 이전에 시험비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우리군은 현재 개항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공항의 위상과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리군은 특히 국제공항안내 홍보물 제작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항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경비직원들이 이미 근무에 들어가는 등 개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항지 지정을 위한 막바지 노력들이 진행중에 있다.

한국공항공단 속초지사 이길희지사는 “역사적인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일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개항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설악권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의 정 소 식



### 1월 29일 새해 업무보고 청취

**제 90 회 임시회** 양양군의회(의장 황봉율)는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제90회 임시회를 열고 실·과소별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았다.

군의회는 제90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6일, 양양 신항만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기획예산처에 발송했다.

박상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투자사업 조기발주와 관련, 실제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주문했다.

고용달 의원은 읍면순회 군정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망했다.

이건필 의원은 기구조정으로 양양읍 사무소의 민원, 복지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부족에 대해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김주혁 의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도립공원 내 육림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황봉율 의장은 관내 읍면 정보이용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활발한 PC 활용교육에 선행되기를 주문했다.

김돈일 의원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과 관련, 지가상승 예방을위해 선매입후 이장토록 요구했다.

박철수 의원은 관내 공사추진시 현장점검 등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4색 테마' 홍보영화 제작

지난달 25일 시사화

인터넷관광홍보 국제화 대비

마케팅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여성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지역여성 사회참여 활발

‘4가지 테마의 색깔로 관광양양을 알린다.’ 우리군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홍보영화 시사회를 갖고 각종행사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0년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올해 완성된 우리군 홍보영화는 우리지역의 문화와 미래, 관광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제작된다.

비디오 테이프와 CD 두가지 종류로 제작되는 홍보영화는 양양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해맞이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향토축제, 특산물, 향토음식 등 다양한 소재를 빠른 영상미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원정주권 도시건설을 목표로 바다와 산,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편이 색다른 감흥을 전하고 오색과 소리, 고유의 선으로 이뤄진 양양의 문화가 아름다운 영상미를 선사한다.

특히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양양국제공항, 동해고속도로 등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은 미래편은 우리지역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역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군 홍보영화는 사업비 6천7백여만원을 들여 지난 2000년 9월 제작, 오는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시사회를 마친 홍보영화가 완성되면 상영과 함께 무료배포도 계획중이다.

<문의:670-2223>

우리군은 오는 3월28일 잠정 확정된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솔루션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관광양양’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달까지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그동안 추진한 관광분야 정책과 다양한 마케팅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양양군청 회의실에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마케팅솔루션 개발추진에 따른 시연회를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군이 추진하는 인터넷 마케팅솔루션은 관광마케팅 구매욕구가 높은 여행사, 쇼핑센터, 방송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관광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상에서 잠재적 관광객들에게 실시간 효율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마케팅솔루션 개발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배포하던 홍보방식에서 탈피, 관광마케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양양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여행, 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군관계자는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발맞춰 개발한 인터넷 마케팅솔루션이 효과적인 관광홍보 효과를 가져와 관광객과 수입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발을 통해 양양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경우, 소비자들과 직접 판매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군이 지난해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여성정책과 관련해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뽑혔다.

우리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군이 추진한 여성정책이 강원도로부터 △여성공무원 인사 및 복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남녀평등의식 촉진 △단체장 관심도 등 심사대상 4개 항목에 걸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강원도가 지난해부터 여성정책 주류화와 추진기반을 다지기 위해 실시한 ‘여성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에 따른 것이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29.5%인 우리군은 지난해 5급 승진때 한정임 공보담당을 주민주치단장으로 인사발령했으며, 부부공무원 가운데 인근 시·군에 별거중인 공무원의 관내 전입,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사업 및 여성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돼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우리군 여성회관의 취업중심교육 및 수료생 사후관리, 해외연수와 여성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 50% 참여 등 우리군의 여성정책이 실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군은 여성정책 최우수기관 선정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지역의 여성정책 적극확대와 여성복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 꽃동산\*꽃길로 이미지 높인다

## 올 10월까지...국도변에 조성계획

‘관광양양이 꽃길로 뒤편한다.’

우리군은 국제공항 개항과 월드컵 개최,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유치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양양지역을 비롯한 설악권을 찾을 것에 대비, 국도변에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7번 국도를 중심으로 44번, 56번 국도 주변에 환경정비차원에서 꽃동산과 꽃길 조성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정연덕 부군수를 중심으로 소회의실에서 꽃동산·꽃길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와 꽃요식재 품종선택, 꽃요생산자 선정 등 세부적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양양지역 사회단체와의 사업추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군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예년보다 많이 찾을 것으로 보여 이미지를 높이고 행락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기 위해 꽃길 및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세심한 관리를 통해 꽃의 고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동창 전부군수 등 명예퇴임

지난달 26일...최선태, 정세환씨 등 공로패

양동창 전 양양군 부군수 등 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명예퇴임식이 지난달 26일 양양문화관 대강당에서 퇴직 공무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명예퇴임식에서 양동창 전 부군수와 현복면장을 역임한 최선태씨, 정세환 전 농림경제과장 등 명예퇴임자 3명은 강원도지사와 오인택 양양군수로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양동창 전 부군수(58세)는 지난 2000년 1월 양양군에 발령 받아 2년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적을 수행했으며, 최선태씨(58세)는 지적과장을 거쳐 현복면장(58세)으로 공직생활을 마쳤고 정세환씨(58세)는 의회사무과장에 이어 군청 농림경제과장을 역임했다.

### 문화유적 탐방하세요

군은 ‘문화의 세기’를 맞아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거주 학생과 사회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양지역 문화유적 탐방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 및 개인,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예상되는 양양 문화유적 탐방은 양양문화관을 시작으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양양선사문화전시실, 양양향교를 둘러본 뒤 오산리선사유적지를 견학한다.

또한 제례행사가 열리는 동해신묘와 낙산사를 돌아 진전사지, 범부리 고인돌, 선림원지, 하조대 등 문화·역사적 발자취가 뚜렷한 명소를 찾아간다.

특히 오산리 선사유적지와 불교발상지의 중창, 발굴작업이 시작된 진전사지 탐방은 참가자들에게 양양지역의 생생한 역사적 의미와 자긍심을 높이게 된다.

올해 문화유적 탐방 추진 계획에 따라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이런 일 했어요!!!



#### 공무원 명예퇴임식

지난달 26일 양동창 전 부군수 등 3명에 대한 명예퇴임식이 열렸다.



#### 홍보영화 시사회

우리군이 제작한 홍보영화시사회가 지난달 25일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지역발전 토론회**  
강원도민일보 주최 토론회가  
지난달 23일 소의회실에서 개최됐다.



**아르바이트생 간담회**  
정연덕 부군수는 동계 아르바이트생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 정화구역내 시설 심의 후 설치

속초교육청은 학교정화구역내 구제대상 업소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뉜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이다.

학교정화구역내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업종행위 및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행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특히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해제 민원안내를 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설계도면 1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1부, 주변 약도 1부가 필요하다.

<문의:637-7407>

###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회장 이\*취임식

농업경영인-이용인씨, 여성농업인-박금순씨

한국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회장 이용인)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양양농협에서 2002년 임시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우리지역 농업경영인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전임 회장인 김웅래씨와 임원단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는 새해 사업계획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해외연수 및 지속적인 농업인 자녀대상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영인 자질향양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한국여성농업인 양양군연합회(회장 박금순)는 지난 22일 양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오인택 양양군수와 이진호 번영회장, 여성회원 등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시총회에서 군연합회는 김순선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지난해 연합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올해 사업추진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회원들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사업과 함께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화재배에 관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낙산지역 관광객 몰린다

지난해보다 1백50% 증가...대관령구간 개통효과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개통에 따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설악권 일대의 관광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12만7천4백50명으로 지난 2000년 같은 기간 5만1천35명보다 1백50%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낙산도립공원의 경우, 지난 1월 한달간 모두 16만2천명이 이곳을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5만8천5백명)에 비해 1백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낙산사 입장객수는 4만8천7백명으로 지난해 1만8천7백명보다 62% 증가했으며, 낙산지역 숙박업소의 가동율도 크게 증가해 주말은 90%, 평일에는 50%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숙박업소 가동율은 지난해 대비 주말에는 50%, 평일은 30%가 증가한 수치로 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군은 설악권 주말 관광객 급증에 따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정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관광객 안내 및 수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연어의 나라 일본을 다녀와서

다음날 일찍 노천온천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깨어나와 바쁜 일정을 시작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이요보야(연어) 회관이었다. 우선 연어 염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연어가 평균 50만 마리가 몰려온다는 이 도시는 연어를 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연을 잘 이용해서 발전시킨 모습이 부러웠다.

염장법 실습 도중 가르쳐주시는 분의 설명대로 모두 실습을 하였고 지방 신문과 잡지사 그리고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갔다. 연어 손질을 잘 끝내고 우리는 수수료증을 받았다.

곧바로 우리들은 공민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50대 이상인 아주머니들이 나오셨고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두 번의 슬리퍼를 갈아 신으면서 또 한번의 청결함을 느꼈다. 음식 하나하나가 보는 음식이었고 연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는 입맛에 맞는지 고소함도 느꼈다.

잘차린 연어 요리를 가지고 무라가미시 시장님과 부녀회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셔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같이 초청해 주셨다. 서로 감사의 인사와 환영의 인사를 하면서 따뜻한 관계로 발전되길 바랐다.

**현남면 하월천리 이진주 <다음호에 계속>**

## 백두대간보존회...구룡령 생태터널서

군은 지난달 13일 백두대간보존회 속초·양양지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구룡령 정상에서 겨울철 강추위와 먹이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야생조수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따른 불법엽구류 수거가 동시에 이뤄진 이날 행사는 구룡령 생태터널을 기준으로 오대산 근처와 갈천 방면으로 나눠 옥수수, 감자, 귀리 등 1백20kg의 먹이가 뿌려졌다.

겨울철 먹이주기가 환경생태계와 야생조수의 생활패턴을 저해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사는 백두대간보존회 회원들이 야생조수의 생태터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룡령 정상에서 열려 생태계 보존 의미를 높였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육군 제 1799부대와 제1818부대 등 양양지역 군부대와 협조로 육로 및 항공기를 이용한 먹이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